

19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2016 전국금융산업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민중가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(가칭) 창당을 추진하는 안철수 의 원이 나란히 서서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다.

## "당을 위해 희생과 헌신 하겠다" 멈춰선 당 지지율 끌어 올리기

### 국민의당 합류 현역의원들 '기득권 포기, 경선 참여 선언' 왜?

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'국민의당'에 합류한 현 역의원들이 19일 4·13 총선 공천 보장을 비롯한 기 득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은 국민의당 지지율이 최근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대 응 차원으로 풀이된다.

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급속히 오르던 지지율이 주춤한 것은, 현역 의원들 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국민 특히 호남 유권자들로 부터 '도로더민주'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부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. 또 현역 의원들이 마치 공천 을 보장받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았던 부분도 '경선을 마다하지 않겠다'는 결의를 하게 한 이유로 꼽힌다.

국민의당 안팎에서는 대부분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이 이뤄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치신 인들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범 위를 뛰어넘는 가산점제도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. 현역 의원들의 합류로 참신성이 떨어 지는 부분을 신인들에 대해 가산점을 대폭 부여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. 이에 대 해 현역 의원들도 일정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.

문제는 이 같은 현역 의원들의 결의가 국민의당 상승세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점이다. 하지 "공천 보장 받고 탈당" 비판에 "경선 마다 않겠다" 결의 다져 주승용 오늘 합류…원내대표 거론

만, 이들의 이날 결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감 지되지 않고 있다. 당연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.

특히 현역 의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아직도 부족 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. 새정치와 혁신, 정권교 체 등을 외치며 탈당을 한 의원들이 자신들의 희생 과 헌신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'자신들 의 정치적 생명줄인 공천을 쉽게 받기 위해 신당행 을 택했다'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다. 따라서 국민의당이 또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 해서는 안 의원뿐 아니라 다른 참여 중진 의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에 합류한 13명 '탈당 파' 의원을 비롯해 최근 더민주를 나온 신학용 의원 이 참석했고, 주승용 의원도 결의문에 뜻을 함께했 다고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.

애초 탈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

문뿐 아니라 원내대책까지 논의할 생각이었다. 하 지만, 더민주 문재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하기 로 하면서 의원총회를 하루 미루고 간담회로 축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주 의원은 20일부터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. 특히 주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의원들 사 이에서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. 주 의원은 호남 출신인데다 중도 성향이어서 원내대표 최적임자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. 더민주에서도 문 대표 다음 위치인 선임최고위원 역할을 했기 때 문에 명분도 충분하다는 게 대다수 탈당 의원들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 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봉 수(63) 전 키움증권 부회장영입 사실을 공개했다. 충북 괴산 출신인 김 전 부회장은 선경증권 이사, SK증권 상무, 키움닷컴 대표이사, 한국 거래소 이 사장 등을 역임한 금융·증권 전문가다.

김 전 부회장은 "우리나라 현실정치는 이분법적 인 진영논리에 매몰돼 있어서 국민을 갈라놓고 있 다"며 "여기에 국민들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, 실망의 단계를 떠나서 분노의 과정까지 가고 있는 것 같다"고 말했다. 다만,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선 "현실정치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"고 답했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### 탈당 흐름 막고 야권 통합 물꼬 틀까

박영선·지역 의원들 잔류 가능성…천정배 "21일 입장 밝힐 것"

#### 문재인 사퇴 선언 영향은…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대표직 사퇴 등 '백의종군' 입장을 밝히면서 분열된 야권의 지형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. 그동안 탈당 파나 신당 추진파들의 상당수는 문 대표를 비롯한 주류의 '친노 패권주의'를 성토해온 터라, 문 대표 의 거취 표명은 야권의 통합이나 연대 논의에도 일 정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

우선 더민주 내부의 추가 탈당을 막는데는 상당 한 제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추가 탈당이 예고된 인사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, 김영록 이윤 석·박혜자·이개호 의원 등 호남권 의원 5명이었다. 그러나 이들은 지난 15일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취 임하고 문 대표가 사퇴를 시사하면서 탈당 일정을 뒤로 미룬 상태다.

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사퇴 결정이 너무 늦 었다며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, 나머지 4 명은 당 잔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제기된다. 광주·전남지역 의원들의 탈당에 따른 광 역·기초의회 등 지방의원들의 탈당 러시도 잠시 주 춤해지고 있다. 20일에는 광주지역 여성 지방의원 들이 당 잔류와 당 사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 질 예정이다.

이런 가운데 탈당한 유성엽·김관영 의원을 제외 한 전북 의원 9명 전원이 전날 탈당하지 않겠다는 내 용의 성명을 발표하고, 충남 지역 의원들도 당 잔류 를 선언하는 공동 성명 채택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.

수도권 의원의 거취에 큰 변수인 박영선 전 원내 대표는 주중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변에서는 당 잔류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

측을 내놓고 있다.

문 대표가 이날 공식 논의의 개시를 제안한 무소 속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, 정의당과의 통합 및 연 대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사다.

문 대표는 당초 천 의원과 통합을 통해 공동선대 위원장 체제를 만들고, 정의당과는 통합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만큼 선거연합을 고려해왔다.

하지만,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다. 정의당 관계자 는 "통합이 아니라 야권 연대에 대한 이야기라면 당 연히 긍정적으로 본다"고 말했다. 후보단일화 등 여야 일대일 구도를 형성하는 연대라면 충분히 논 의가능하다는 뜻이다. 반면 천 의원은 "국민회의는 더민주가 당의 해체에 준하는 변화로 기득권 해체 를 실천하는지 좀더 지켜보겠다"고 유보적인 자세 를 보였다. 다만 천 의원의 국민회의가 독자신당 체 제로 총선전에 임하기 쉽지 않고 안철수 의원의 '국 민의당'과 대립각을 세워왔다는 점에서 적절한 시 기에 통합 내지 연대 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. 천 의원은 오는 21일 문 대표의 제 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.

관건은 안 의원의 '국민의당'과 연대를 어떻게 풀 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. 안 의원은 독자 창당 방침을 밝힌 이후 더민주와의 통합은 물론 후보단 일화 등을 위한 야권 연대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설령 논의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진 통이 불가피해 보인다.

안 의원 측은 "우리는 더민주의 한계를 깨기 위 해 나온 당인데 과거 인식과 행태를 전혀 고치지 않 고통합 운운하는 것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"고 말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/ 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# 2016년 01월 08일(금)~01월25일(월)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패턴 : (2박3일) / (3박4일) / (4박5일) 광두광역시통구 급납로5가 151~1번지 1층 1 January http//www.joytour.kr 10 (11) 12 13 (14) 15 16 14 18 (19 20 21 22 23 21 26 27 28 29 30 28

## 무안 ↔ 씨엠립 전세

씨엠립/앙코르왓(3N) 4일 정인 /1,100,000원 /1,180,000원

· 중사는 관광진동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,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. 등록번호:제동다 2003-1호

<u> 역린의 /1,050,000원</u> /1,130,000원

36홀 /1,450,000 ~ 1,520,000원 씨엠립 골프 4일 54홀 /1,550,000 ~ 1,620,000원

토요일 출발 -

/1,110,000원 /1,180,000원 /1,130,000원 씨엠립/앙코르왓(3N) 5일 성인 /1,110,000원

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

씨엠립 골프 54홀+앙코르왓관광 5일 /1,550,000 ~ 1,620,000원

탈당? 잔류?…일부 지역의원 오락가락 행보 눈총

더불어민주당(이하 더민주) 잔류와 탈당 여부를 놓고 김영록(해남·진도·완도), 이개호(담양·장성· 영광·함평) 의원의 '오락가락' 행보가 눈총을 사고 있다.

김 의원과 이 의원은 당초 지난 17일 더민주 동 반 탈당을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결행에 나서고 있 지 않다. 두 의원은 전반적인 지역구 민심을 들어 그동안 탈당을 공언해 왔지만 최근 탈당에 반대하 는 목소리가 있다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이다. 여기에 문재인 대표의 사퇴 등의 이유를 들 어 기존 탈당 입장에서 한 발 빼는 모습마저 보이

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모두 전남부지사 출 신이라는 점에서 '관료 정치인'의 한계를 보이고 있 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. 탈당 여부를 떠나 정치적 소신이나 철학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를 주

도해 나가기보다는 정치적 현실에 순응하려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.

당장 김영록 의원은 4월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 선다는 점에서 최근 행보와 관련, 중진으로서 갖춰 야 할 정치적 소신과 존재감이 약하지 않느냐는 비 판이 나오고 있다.

친화력이 강점인 이개호 의원도 잔류파 의원들과 탈당파 의원들 사이를 넘나들면서 너무 눈치를 보 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.

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"모든 방면에 타 지역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호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생계 형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" 며 "탈당 여부를 떠나 호남 정치의 위기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력과 비전 제시로 관료 정치인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"고 말했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